

빛그린산단 송암마을 주민들 “우회도로 개설해달라”

광산 삼도동 유일한 출입구 ‘굴다리’ 하루 평균 1000여대 차량 통행 대형트럭·화물차와 교행뎀 충돌위험 호소...광산구 미온적 태도 불만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생긴 이후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마을이 완전히 고립될 위기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정문 앞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 출입을 위해 드나드는 유일한 출입구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광산구 삼도동 송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2006년 광주-영광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해당 도로 밑으로 개설된 (높이 4.3m x 폭 6m x 길이 18m) 박스형 통로는 마을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송암마을 일대는 광주 시립정신병원을 비롯한 3곳의 요양병원과 각종 공장 등이 들어선 곳으로, 하루 평균 1000여대의 차량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가가 가까워지면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다 보니, 박스형 지하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이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지하통로는 삼거교차로 진입부 도로에서 차량을 90도로 회전해 진입해야 하는 구조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탓에 이 곳을 지나는 대형 트럭 및 화물차 등과 충돌위험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이 도로에선 최근 잦은 접촉사고와 함께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해당 지하통로가 막힐 경우 마을을 오가는 차량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안전하게 지하통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단으로 진입하는 진입부 도로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도로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별도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차량을 이용해 송암마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굴다리를 통과하는 것뿐”이라며 “삼거교차로에서 마을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광주시가 371억원을 들여 이 마을 인근에 있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장애인 특수학교)를 장애인수련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을 전망되고 있다.

광산구는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삼거교차로에서 송암마을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까지 400여 m 구간의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이 당장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우선 송암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지만 전체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빛그린 산단이 조만간 입주하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마을이 고립될 위기인데도 광산구가 수년전부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내세워 뒤늦게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빛그린 산단이 들어선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송암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인 박스형 도로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우회도로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키움뜰 실내놀이터’ 시범 운영

내달 2일부터 온라인 모집

광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으로 영유아 놀이체험공간인 ‘키움뜰 실내놀이터’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 ‘키움뜰 실내놀이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총 213㎡ 규모로 모래놀이실, 그물놀이터,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추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공기제균기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키움뜰 실내놀이터는 지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주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만 5세 영유아와 보호자이며, 광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개인은 2000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는 1500원이며 이용시간은 일일 3회, 개인은 화요일~토요일까지, 어린이집 등 단체는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정식 운영에 따른 예약은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용-예약안내 등 세부 사항은 광주건강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신축 소음 피해 배상 결정

광주 환경분쟁조정위

광주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21일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 배상 신청 사건과 관련해 170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 50명은 주택 철거, 터파기 공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9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통상적인 수인 한도인 65dB를 넘어선 70dB로 인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로 측정돼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신청인 중 43명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청, ‘준비된 코로나19 극복 노하우’ 전국 전파 호응

김삼호 청장, 인프라 구축 체계적 대응 ‘안전·경제정책’ 발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광산경제백신회의’ 결성 역량 집중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코로나19 극복 노하우를 전국으로 전파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대동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광주시청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준비된 광산의 남다른 해법! 코로나19 극복, 광산경제백신회의’를 발표했다.

호남권역 8개 단체장이 발표자로 나선 이날 열린 정책대회는 지방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충청권, 올해 1월에는 수도권에서 열렸다.

김 청장은 발표에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목표로 안전과 경제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난 2년간 구축한 안전 인프라를 토대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광주 면적의 45%, 인구의 28%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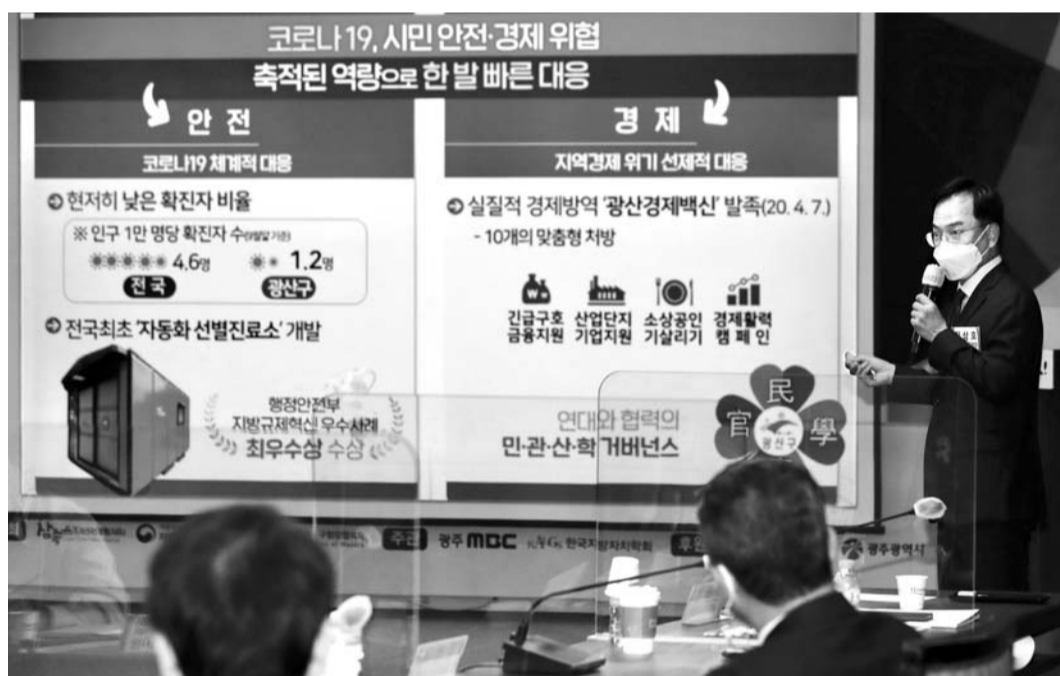
지고 있는 광산구에서 광주 전체 확진자의 10%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민관산학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를 결성해 지역 맞춤형 경제백신 처방 10개를 추진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방역체계와 경제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광주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16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대동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광주 시청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준비된 광산의 남다른 해법! 코로나19 극복, 광산경제백신회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안전 마을·학교·기업 공모

광주시는 “안전 마을·학교·기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광산구 수완동, 광주서초등학교, 디에치글로벌을 선정해 이어 두 번째 공모다.

유형별 사고 발생 통계를 점수화하는 정량 평가와 사고 예방 노력에 가중치를 두는 정성 평가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활동을 정성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선정된 곳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주고 안전시설 사업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한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